

# 광주시-에이모, 인공지능 데이터 협력

### 광주형 일자리 창출 위한 학습데이터 가공 교육

### 광주시민 400명 수료 목표...라벨링 교육 진행

광주시와 ㈜에이모가 인공지능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라벨링 교육'과 취업 프로그램 기획·추진 등다.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가공사업은 정부가 지난 5월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의 3대 프로젝트인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와 맞물려 광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앞서 ㈜에이모는 광주시민 40명을 대상으로 제1기 인공지능 데이터 라벨링 교육을 지난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8월 초까지 총 400명 수료를 목표로 10주간 진행한다.

AI 데이터 라벨링 교육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이다. 데이터 가공업체와 상담 후 비대면 일자리 투입이 가능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인공지능 중심 광주에 꼭 필요한 교육으로 평가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광주시장과 오승택 에이모 대표이사는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이모는 머신러닝(기계학습)을 위한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사운드 등 다양한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분류하고 라벨링(어노테이션)해 대량의 학습 데이터를 가공해 서비스 하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가공 플랫폼 전문기업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광주 인공지능 데이터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협업 체계 구축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가공 교육 추진 △인공지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9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에이모 오승택 대표이사와 '광주시-에이모 인공지능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시는 단기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부터 컴퓨터에 익숙한 노년층까지 광주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4기까지 160명 교육신청이 완료됐고 매주 40명씩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7월16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승택 에이모 대표이사는 "광주 인공지능 분야 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미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더 많은 인공지능 관련 기업과 협력해 나가겠다"며 "인공지능 광주를 넘어 기업하기 좋은 광주, 일자리가 많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광주시는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고 강조했다.

조인호 기자

## 등구, 청년 상상비상 프로젝트 약정식 열어

광주 등구는 9일 청년이 직접 제안하고 실행하는 제2회 등구 청년 상상비상 프로젝트 약정식을 열었다.

청년 상상비상 프로젝트는 민선 7기 공약인 청년재정확립사업이다. 청년들이 직접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개발·제안·실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등구는 지난달 6일까지 공모 접수된 청년모임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4개 프로젝트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일상의 동네생활 △로컬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커뮤니티형 공간플랫폼 구축 △광주 등구 비건 라이프 △푸른길 예술산책로 등 4개다.

## 서구, 취약계층 주민 900여명에 희망일자리 지원

광주 서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위해 900여 명의 대규모 희망일자리사업을 발굴했다고 9일 밝혔다.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희망일자리사업단은 일자리 발굴을 위해 3회에 걸쳐 부서 수요조사를 진행, 총 73개 사업을 발굴했다.

이중 장애인주거지원 이용 실태조사, 취약계층 면마스크 제작, 학교 주변 금연 계도, 도시환경정비, 코로나19 예방사업 등 지속 가능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 58개를 확정했다.

## 남구, 부적정 거래 의심 부동산 68건 정밀조사

광주 남구는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적정 거래로 의심되는 68건을 정밀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남구는 7월까지 거래계약서, 대금지급 증빙서류, 증빙서류간 일치 여부 등을 조사해 실제 거래내역을 발원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남구에서 2018년 7~8월 사이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 68건을 정밀조사 대상으로 통보했다.

이 중 60% 가량은 효천1지구와 백운광장 주변 신축 아파트 관련 거래였고, 나머지 대다수는 방림동과 월산동의 부동산 거래였다.

남구는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관련법에 따라 취득가액의 2~5%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북구, 30일까지 구민상 후보자 추천 공모

광주 북구는 30일까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주민을 대상으로 제13회 구민상 후보를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지역경제 △지역사회봉사 △문화예술체육 △효행 △장한 장애인 등 5개 부문으로 각 부문별 1명씩 선정한다.

공모대상은 3년 이상 북구에 거주한 주민이다. 지역경제와 문화예술체육 분야는 북구에서 3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

후보자는 각급기관이나 사회단체장 또는 지역주민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추천서, 공적조사, 공적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를 북구청 주민자치과로 제출하면 된다.

## 광산구, 마을플래너 양성교육 들어가

광주 광산구가 9일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제5기 광산구 마을플래너 양성교육을 시작했다.

마을플래너는 협동과 신뢰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운동을 펼쳐가는 광산 마을활동가의 대명사.

교육에는 마을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 26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마을활동가 관계망 형성, 정체성과 비전 찾기 등을 목표로, 마을공동체와 마을 만들기 이해, 다양한 마을살이 사례, 인문학적 감수성 기르기 등 강의와 워크숍으로 구성된 교육을 25일까지 받는다.

임형택 기자

## 이용섭 "중증 발달장애인 보살피는 것은 중요한 책무"

이용섭 광주시장은 9일 "중증 발달장애인을 보살피는 것은 광주시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중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난 3월 중증 발달장애를 지닌 청년과 그 어머니께서 극단적 선택으로 고단한 삶을 마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

그는 "중증장애인을 돌보아야만 하는 가족의 고통을 지역사회가 책임지지 못했다"며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목숨까지 그 아픔을 다 견뎌야만 했을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지난 2017년 발달장애인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해 국비 보조 사업을 포함해 22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워낙 취약한 여건 탓에 혜택을 보는 이들이 많지 않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서비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그 고통과 책임을 가족에게만 지도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해당 실국에서는 이들이 자립할 수 있고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온 가족이 이들을 위해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성인 주간 활동서비스 등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정환 기자

## 김영록 지사 "우박 피해조사 철저, 신속한 복구" 당부



### 동부권 피해현장 방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9일 곡성 등 전남 동부 내륙지역의 우박 피해현장을 방문, 철저한 피해조사와 신속한 피해복구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낙과 피해를 입은 곡성읍 묘천리 매실 재배농가를 찾아 피해실태를 점검하고 시름에 빠진 농가를 위로했다.

피해지역을 둘러본 김 지사는 "오는 19일까지 피해조사를 완료해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복구비가 지원되도록 하겠다"며 "피해농가의 시름을 덜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에도 힘써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 전남 곡성, 보성, 순천 지역에서는 2~10분간 곳에 따라 지름 0.5~1cm 크기의 우박이 쏟아져 과수·밭작물 등 176ha가 피해를 입었다.

김정환 기자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인건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서민정협의회 |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역사문화재단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부 근무 시간제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아람 실현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합니다.

국민이족에서 제안한 슬로컨셉이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원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평균 15,330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중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보험료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급여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